

“즐거운 문화공연과 함께 자연생태환경의 소중함 느껴요”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 생태지질 환경이야기 콘서트 개최

(사)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회장 이상복)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의 다양한 생태지질 환경이야기를 문화공연과 접목해 그 소중한 가치를 되새겨보는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7일 오후 고창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생태지질 환경이야기 콘서트'는 박우정 군수, (사)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 회원을 비롯한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고창의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노래, 연주, 시 낭송 등 다양한 볼거리와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인증 단체의 우수한 농·수·축·임산물과 가공품 등의 홍보가 이뤄졌으며, 자연친화적인 먹거리 등을 체험해 보고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간도 마련돼 성황을 이뤘다.

이상복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장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잘 가꾸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군은 생물권보전지역을 경쟁



(사)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의 다양한 생태지질 환경이야기를 문화공연과 접목해 그 소중한 가치를 되새겨보는 행사를 개최했다.

력 삼아 자연생태환경을 잘 가꾸고 더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지역이 되고 이를 통해 군민들이 소득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복 받

은 자연생태환경과 지역의 문화, 역사, 관광자원을 연계·결합해 더욱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군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개선 추진

전주시가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셔틀서비스에 대한 기능 개선에 나섰다.

시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28일 이지콜센터에서 신재석 전주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 단체 6개 대표자와 시의원, 전문 제작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셔틀버스 내·외부 기능개선을 위한 관계 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10월부터 제공될 셔틀버스의 제작에 앞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내부 전용공간 설치문제,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노선안내 방송, LED 표시, 입석자를 위한 지시대, 외부 디자인 등 셔틀버스 이용자와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이날 휠체어 이용자의 승·하차와 자동차 고정장치 사용 시 불편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시는 이날 제시된 셔틀버스 이용자들의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오는 9월까지 디자인 및 설계, 제작업체 선정, 제작, 납품 및 검수 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10월부터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전북농협, 농촌사랑운동본부와 한방의료 재능 나눔 전개

전북농협과 구천동농협은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사)농촌사랑운동본부 운동본부 농촌사랑회원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침구학회 학생들이 무주군 구천동농협 2층 회의실에서 실천면, 무풍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방 재능 나눔 봉사를 실시한다.



이날 재능 나눔 봉사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과 농촌사랑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침구학회 학생들이 구천동농협 관내 어르신들에게 혈압, 체온측정, 문진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병을 진단하고 침, 뜸, 부항 등으로 한방치료를 할 계획이다.

구천동농협 양승욱 조합장은 “농촌 어르신들이 농사 일로 많이 지쳐 있었는데 젊은 대학생들이 와서 한방의료 봉사를 해줘서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매년 한방의료 봉사를 해 주길 바란다”며 감사에 뜻을 전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9일 (목요일)
등록번호 전북 74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호승출)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근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68-9700 • 업무국 FAX 268-9703 • 편집국 FAX 268-9704

전주시 010-985-4113	중앙지사 010-93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888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산지사 010-6789-0389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호주지사 010-665-9355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389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1-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정읍경찰서, 크레용유치원 승합차 탈 때 유의사항 교육 실시

정읍경찰서(서장 김종화)는 지난 27일 견학 은 6세반 크레용유치원 원생에게 승합차 탈 때 유의사항, 112신고 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승합차 탈 때 유의사항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무전기 체험을 비롯해 올바른 112신고 요령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다.

상평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김종화 서장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길 바라며, 아이들이 하나라도 더 배우고 행복해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시 서민 주거불안 해소 위한 '사회주택 시민포럼' 개최

전주시가 서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28일 전주시시역신센터 1층 교육실에서 전주시 주거복지 네트워크 관계자와 사회주택 시민포럼 관계자, 사회주택공급 사업예정자,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사회주택 시민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시민포럼에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사회주택 관련 전문가이자 서울시 사회주택의 공급 및 운영 주제로 활동 중인 김중식 (주)녹색친구들 대표가 강사로 초청돼 전주시 사회주택 추진방안 및 추진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정부의 사회주택 정책동향과 관련 법 개정 동향, 한국사회주택협회와 전주 사회주택 시민포럼과의 연대 및 조직화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이번 시민포럼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하반기에 추진되는 '전주형 사회주택 시범 공급사업' 공모신청 접수에 앞서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추진계획과 운영 사업시행자 공모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했다.

임재준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비영리 민간의 자원과 공공의 자원이 결합해 민간의 유연함과 공공의 공공성을 두루 갖출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사회주택) 공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서부보훈지청, 위탁병원 입원 국가유공자 위문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우실)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7일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인 익산병원을 방문하여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 20여명에게 대통령 위문품을 전달하고,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다.



매년 국가보훈처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승고한 희생과 공로에 감사를 드리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위문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서부보훈지청은 관내 위탁병원에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위문을 실시하였으며 병원 관계자들에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정영원 기자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고속버스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대장 방홍)는 28일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휴게소(하행선)에서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와 합동으로 안전한 고속버스 운행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버스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차량타이어 마모상태 등 정비상태 점검과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 장거리 운행 시 졸음운전 사고예방을 알리는 전단지 등 홍보 용품을 배부했다.

캠페인 홍보용품을 전달받은 운전자 김모씨는 “장거리 운행으로 졸음운전이 걱정 됐다”며 “경찰에서 실시하는 안전운행 캠페인으로 졸음운전 걱정이 없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방홍 9지구대장은 “고속버스는 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므로 2시간 운전 후에는 반드시 20분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속·난폭운전 및 음주기부 행위에 대하여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면서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1민 기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유네스코 음식왕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